

# 清代 文言小說 『蜚窗異草』의 판본과 국내유입\*

유희준·민관동\*\*  
(경희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중국 문언소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뽑으라면 바로 『聊齋志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聊齋志異』는 魏晉·唐의 소설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일반 독자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소설로 清代의 대표적 문언소설인 동시에, 백화소설에 밀리어 식어가던 문언소설에 다시 한 번 번영의 불꽃을 당긴 소설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聊齋志異』가 나온 그 이후 아류작들이 대거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백화소설 속에서도 문언소설의 명맥을 유지시켜주는 초석이 되었다. 이런 창작의 흐름은 民國 연초까지 이어졌으니, 그 인기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소위 “聊齋體”라 불리는 이런 소설류는 清代 문언소설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魯迅도 『中國小說史略』에서 『聊齋志異』를 본받은 작품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며 열거하였다.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A00128)

\*\* 주저자: 유희준(慶熙大學校 비교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신저자: 민관동(慶熙大學校 중국어과 교수)

순수하게 『聊齋』를 본받은 작품으로는 당시 吳門의 沈起鳳이 지은 『諧鐸』 10권이 있지만, 그 뜻이 지나치게 익살스럽고 문필역시 섬세하다. 만주의 和邦額이 지은 『夜譚隨錄』 12권은 다른 사람의 책에서 제재를 빌려 온 것이 자못 많아 모두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문투도 역시 때로 조야하고 거칠지만, 변방의 경물과 시정의 상황을 기술한 것은 특히 불만하다. 그밖에 長白 浩歌子の 『螢窗異草』 3권 12권, 海昌 管世灝의 『影談』 4권, 平湖 馮起鳳의 『昔柳摭談』 8권, 근래에 이르러서는 金匱 鄒弢의 『澆愁集』 8권이 있는데 모두 지괴이며, 앞서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聊齋』의 상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

노신이 언급한 목록 외에도, 『聊齋志異』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는 『小豆棚』, 『淞濱漫錄』, 『淞濱瑣話』 등이 더 있다.

『螢窗異草』는 소재, 형식, 필법에 이르기까지 『聊齋』의 모방작이라 할 만하다. 심지어 ‘聊齋剩稿’라고 불러 지기도 하였다. 소재의 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으로는 신과 귀신, 요괴, 여우 등이 등장하는 작품이 많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간단하고 생동감 있는 문언으로 쓰여진 단편고사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 편말에 ‘外史氏’ 와 ‘隨園老人’이 평했다는 짤막한 단평이 있다. 이 작품은 가장 비현실적인 기이한 이야기를 취해 현실생활에 반영하여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사상을 반영하였다.

1872년 4월 30일 上海에서 정식으로 개업을 시작한 申報館이라는 書坊이 있었다. 이 출판사에서 주로 문언소설류의 작품들을 인쇄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는데2) 그 중 淸 光緒2-3年(1876-1877)에 『螢窗異草』라는 작품

- 1) 魯迅 著, 조판희 역주, 『中國小說史』, 서울:소명출판, 2004. 540-541쪽.
- 2) 書坊 申報館의 문언소설 출판 상황: 宋莉貨 著, 『明清時期的小說傳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62쪽.

書名	定價	折銀
印雪軒隨筆四卷	每部四本价洋二角	一錢五分
庸閑齋筆記八卷	每部四本价洋二角五分	一錢八分
懸窠諫言十二卷	每部四本价洋四角	二錢九分
客窗閑話正續十六卷	每部四本价洋四角	二錢九分
螢窗異草四卷	每部四本价洋二角	一錢五分
影談二卷	每部四本价洋一角五分	一錢一分
...	...	...

을 출판하였다. 初編、二編、三編, 每編 四卷, 총 3편 12권 138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총 3십 여 만자로 평균 한 작품 당 2천자의 분량이 된다. 작가는 단지 長白浩歌子라고만 되어있을 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출판되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히려 거의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노신의 『중국소설사략』 이외에도 寧稼雨의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侯忠義의 『中國文言小說參考資料』, 袁行需와 侯忠義의 『中國文言小說書目』, 林辰의 『神怪小說史』, 薛洪彭의 『傳奇小說史』, 李劍國과 陳洪의 『中國小說通史』등에 오직书名만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 작품은 1876년 최초 인쇄되어 출판되었지만, 오히려 학계에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나마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물들이 조금씩 소개되었다. 薛洪의 <『螢窗異草』論略>, 祝注先의 <長白浩歌子和他的『螢窗異草』>, 王鴻芦의 <關於『螢窗異草』幾個問題的探討>등을 선두로,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서 『螢窗異草』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 하였다. 裴效維의 <『螢窗異草』的寫作時間及作者考>, 李峰의 <也談『螢窗異草』之成書年代及作者>, 劉燕萍의 <『螢窗異草』中的人仙戀>, 李杰玲과 李寅生の <『螢窗異草』: 『聊齋』余瀾中的波峰-探析『螢窗異草』的思想和藝術特色>, 王海洋의 <合說部之衆長續『聊齋』之神韻-清代仿『聊齋』傳奇小說概念>, 등의 논문이 나왔고 2006년에는 석사논문 2편이 나왔다. 한 편은 紀芳의 <『夜譚隨錄』『螢窗異草』報恩主題作品的文化闡釋>이고, 다른 한 편은 段穎의 <“人間四月芳菲盡, 山寺桃花始盛開”-論文言小說『螢窗異草』>등 이다. 하지만 이들 논문은 주로 작가의 고증문제, 창작시기의 문제와 판본, 인쇄의 문제 등을 다루는데 그쳤다. 그에 반해 2009년 李曉暉의 <『螢窗異草』研究>에서는 소재와 내용, 예술성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螢窗異草』의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螢窗異草』의 작가와 판본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에 유입된 시기, 국내 소장된 규장각 판본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 소장된 판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작가 “長白浩歌子”에 대하여

### 1. 작가에 관한 네 가지 설

『螢窗異草』의 작가 署名은 長白浩歌子 라고 되어 있으며, 이것은 당연히 필명이다. 長白浩歌子의 신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로 4가지 설로 귀결된다.

첫째, 長白浩歌子는 乾隆年間 大學士 尹繼善의 여섯째 아들 尹慶蘭이라는 설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梅鶴山人이 <『螢窗異草』序>에서 말하길 “누군가 『螢窗異草』 필사본 三冊을 보았다고 하는데, 署名이 ‘長白浩歌子’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尹씨네 6째 아들이라고도 한다<sup>3)</sup>”라는 언급이 있다. 『螢窗異草提要』에 이르길 “浩歌子는 尹文端의 여섯째 아들로, 似村은 秀才로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귀한 신분이었지만 저술에 뜻을 두어, 이젠 귀하다고 할 수 없다<sup>4)</sup>”라는 구절도 있다. 또한 清末 民初 사람 恩華(1868-?)가 1936년에 편찬한 『八旗藝文編目』에 稗說類 “螢窗異草條” 아래에 “만주 경란 저, 경란의 자는 사촌이고, 양생(諸生)이다. 윤문단의 아들이다<sup>5)</sup>”라는 기록이 있다. 袁行需, 侯忠義의 『中國文言小說書目』에도 『螢窗異草』의 작가를 尹慶蘭이라고 언급했다. 馮偉民, 薛洪, 祝注先 등의 학자들도 尹慶蘭의 생애와 문학적 소양 등을 고찰하면서 『螢窗異草』의 작가를 경란이라고 고증했다. 이 '윤경란설'은 거의 학계에서

3) 梅鶴山人, 『螢窗異草(螢窗異草序)』,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0, 1쪽.

4) 相傳浩歌子爲尹文端第六子, 似村以一秀才終, 貴介而能注意著述, 已爲難能可貴.

5) 滿洲慶蘭著. 慶蘭字似村, 庠生. 尹文端公子.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다. 그 외의 說들이 있지만, 크게 주목을 끌 만한 주장은 아니다. 여기서는 단지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둘째, 작가는 申報館의 文人이라는 설이다.

清末 학자 平步青(1832-1895)은 이 작품을 반드시 윤사촌의 썼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매가 평을 달았으나, 모두 허황된 이야기로 사건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2편, 3편의 이야기를 봐도 졸렬한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신보관에 속해 있던 문인이 출판을 위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sup>

셋째, 작가는 光緒年間에 과거를 치르려는 문인이라는 설이다.

陳祖武와 李金松은 二編 卷四 <窃妻>에 나오는 “西國友人”이나 “香港” 등의 단어들을 근거로 들면서 작가는 19세기 후반에 이름을 숨긴 문인이라고 주장했다.<sup>7)</sup>

넷째, 작가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여성작가라는 說이다.

李杰玲, 李寅生은 <『螢窗異草』:『聊齋』余瀾中的波峰-探析『螢窗異草』의思想和藝術特色>에서 소설 속의 여성 형상을 분석한 후에, 작가는 여성일 수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sup>8)</sup>

이런 네 가지 설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미 『螢窗異草』의 작가로 고증된 ‘尹慶蘭說’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들과 그 자신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尹慶蘭의 가족과 생애

尹慶蘭은 字가 似村으로 본래 姓은 章佳이다. 滿洲 鑲黃旗人으로 조상들은 遼東지역에 적을 두고 있었다. 祖父 尹泰(?-1738)는 兵部尙書를 역임하고, 東閣大學士 재상까지 지냈으며 학문에 뛰어나, 『大清會典』, 『世宗實錄』의 편찬에도 관여했다. 乾隆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 대한 기록

6) 平步青, 『霞外裙屨』上,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2, 392쪽.

7) 陳祖華, <螢窗異草成書年代獻疑>, 『貴州社會科學』, 1988, 第10期, 60쪽.

李金松, <螢窗異草成書年代及作者辨>, 『文獻季刊』, 2000, 第3期, 286쪽.

8) 李杰玲, 李寅生, <螢窗異草: (聊齋) 余瀾中的波峰- 探析(螢窗異草) 的思想和藝術特色>, 『蒲松齡研究』, 2007, 第2期, 145쪽.

은『清史稿』卷289에 전한다.



<그림 1 윤계선의 筆跡(詩)>

부친 尹繼善(1696-1771)은 字가 元長이고 號는 文端이었다. 만년에 스스로 望山이라는 호를 붙였다. 尹泰의 다섯째 아들로 雍正元年(1723年)에 進士가 되어 翰林에 들어갔으며, 33세에 江蘇巡撫、34세 江南河道總督등의 직을 역임하면서 刑部尙書 등, 文英殿大學士로 재상직을 지냈다(『清史稿』권3.

<尹繼善傳> ). 雍正, 乾隆 兩

朝 50년의 관직생활을 하였는데, 乾隆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고 전해진다. 윤계선의 여식을 황제의 여덟 번째 아들의 妃로 삼았고, 그 妃의 생모와 계선의 측실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夫人”의 호칭을 내려주었으며, 계선의 70세 생일에 “韋平介祉”라는 편액을 친히 하사하였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乾隆은 繼善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 평가해서 특히 詩를 사랑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특별히 애도의 뜻을 전하여 은자 5천을 하사하며, 여덟째 아들을 친히 보내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9) 그의 저서『尹文端公詩集』10卷에는 1710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尹慶蘭의 형제는 13명이었는데, 尹慶蘭의 셋째 형 慶玉(?-1787)은 字가 璞齋, 號가 兩峰이다. 乾隆21년(1756) 舉人이 되었으며, 安徽按察使、湖北布政使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袁枚의 『隨園詩話』卷14에 이르길 “윤씨 형제들은 모두 詩에 능했는데, 그 중 셋째 양봉이 가장 뛰어나다”10)라고 할 정도로 문학적 능력이 뛰어났다. 저서로는 『錦繡段詩集』가 있다.

넷째 형 慶桂(1735-1816)는 字가 樹齋로 乾隆21년(1755) 그의 나이 21세에 이미 戶部員外郎이라는 관직을 받았다. 그 후 60년 동안 乾隆, 嘉慶年

9) 李曉暉, <『螢窗異草』研究>, 華中師範大學, 2009, 碩士學位論文, 5쪽.

10) 尹氏昆季皆能詩, 而推三郎兩峰爲最.

間에 이르는 동안 兵部尙書까지 올랐고, 嘉慶 초에 또 文淵閣大學士로 재상에 임명되는 등 82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10종의 관직을 하사받게 된다. 『小倉山房詩集』에 袁枚와 주고받은 詩가 여러 首 전한다.

다섯째 형 慶霖(1737—1806)은 字가 雨林, 號가 晴村이다. 侍衛、侍講、寧古塔副都統、靑州副都統、江寧將軍、福州將軍등을 지냈다. 비록 시문집은 전하지 않지만 袁枚가 『題慶雨林詩冊』詩序에 “甲戌 봄淸江에서 雨林의 詩書가 한 冊이 완성 되었다(甲戌春在淸江, 爲雨林公子書詩一冊)”라고 전하고 있다. 甲戌은 乾隆19年(1754)으로 慶霖이 18세 되던 해이다. 이미 이때에 시문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 능했으며, 특히 蘭을 잘 그렸다고 전해진다.

또한 慶蘭에게는 생졸년이 알려지지 않은 慶保라는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字는 佑之이고, 號는 蕉園이다. 江蘇布政使、廣州將軍 등을 역임했으며, 시를 잘 지어 『蘭雪堂集』이 있다. 그림에도 능했는데, 꽃과 나비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이렇듯 윤씨 가문이 비록 만주인이기는 하지만 한 집안에 삼대에 이르는 동안 모두 재상을 배출한 일은 清代에 매우 드문 일이었고, 역대에도 보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尹慶蘭의 여동생도 여덟 번째 왕자의 妃가 되었으니, 尹氏 가문은 그야말로 명문세가라고 할 만하다. 慶蘭은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학문적 소양을 넓힐 수 있었다.

慶蘭은 尹繼善의 여섯째 아들이다. 일찍이 건륭이 大殿에서 수재라고 칭해, 그 일로 인해 “殿試秀才”로 불리기도 했지만, 후에 오히려 과거시험에 낙방하여 평범하게 단지 秀才로서 생을 마감했다. 乾隆年間 유명한 문인 袁枚와 尹씨 집안은 두 세대 간 서로 친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袁枚는 尹繼善의 제자였고, 그래서 윤씨 집안의 형제들과도 각별했으며 여섯째 아들인 慶蘭과는 20년의 나이 차이를 초월한 知己라고 전해진다. 袁枚의 『小倉山房詩集』卷三十二에 <哭似村>이라는 詩가 있는데, 서문에 “今春始寄答二章, 詩未到而似村亡”라는 구절이 있다. 이 ‘今春’이라는 단어로 유추해보면 사촌은 봄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卷32에는 丁未에서 庚戌의 詩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시간을 유추해보면, <哭似村>의 詩 <秋暑>는 戊申

가을이라고 볼 수 있다. <哭似村>의 “今日思量可能再? 几行衰淚付秋風”라는 구절에서 ‘秋風’ 단어를 보면, 이 시는 가을에 썼음을 알 수 있게 한다. <哭似村> 후반부에 <己酉元日香亭以詩見寄依韻答之> 시는 ‘元日’라는 말로 보아 당연히 己酉 정월 초하루에 썼을 것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된 『小倉山房詩集』의 시들을 살펴보면 <哭似村>은 戊申 가을에 쓰여 졌고, 그 해 봄에 尹似村이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乾隆 53年(1788) 봄이 戊申이었고, 尹似村이 죽은 것이다. 『小倉山房詩集』 卷十四 <投尹六公子似村>에 “我年如郎小, 初拜老尚書. 忽忽二十年, 郎年復我如” 로 보아 尹似村은 원래보다 20살 아래인 것으로 보인다. 袁枚는 康熙55年(1716)에 출생하였고 尹似村은 乾隆元年(1736)에 출생하였다. 그렇다면 尹慶蘭은 乾隆元년에 태어나서 53年(1736-1788)에 생을 마감한 것이고, 그의 나이 향년 53세였다.<sup>11)</sup>

尹慶蘭은 어릴 적 곁에서 부친을 따라다니며 모셨다. 부친의 50년 관직 생활 중 북경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한다. 초반의 2,3년 이후 20여년 이상을 전국 여기저기 지방관으로 발령받았고, 그럴 때마다 부친을 따라 거의 대륙 전 지역을 돌아다녀야만 했다고 전해진다. 東으로는 浙江、江蘇, 西로는 四川、陝西、雲南、貴州, 北으로는 伊犁、遼東、北京, 南으로는 廣東、福建 등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곳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험은 훗날 경란의 창작에 밑거름이 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乾隆12年(1747), 12세에 慶蘭은 황제로부터 ‘秀才’라고 칭함을 받았다.<sup>12)</sup> 이것은 慶蘭에게 있어 공명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화려한 입문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이후 그는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종신토록 단지 수재에 머물고 만다.

乾隆20年(1755), 慶蘭은 아버지를 따라 江南에 와서 隨園에 머물게 되면서, 隨園主人인 袁枚와 평생의知己가 된다. 30여년의 사귀어 드디어 시작

11) 원매와 19살 차이로 보고 있는 說도 있다. (裒效維, <螢窗異草의 寫作時間及作者考>, 『文史』, 2000, 第1期)

12) 袁枚의 『隨園詩話補遺』卷四에 이르길 “<殿試秀才>者, 以丁卯(即乾隆十二年, 1747年)科試, 諸生鬧場, 上惡之, 親自監試, 似村獨蒙欽取故也”이라고 했다.



된 것이다. 이때는 慶蘭이 막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여 둘의 금슬은 매우 좋았던 때라서 袁枚는 특별히 <尹六公子花燭詩> 五首를 지어 축하했다고 전해진다. 그 중 “尙書婚嫁人間說, 開到瓊花第六枝”句가 있다. 그 후 10년 동안 慶蘭은 줄곧 강남에 머물렀으나 乾隆30年(1765)에 부친이 마지막 6,7년을 북경에서 재상직을 지냈기 때문에 江南을 떠나야 했는데, 경란역시 아버지를 따라 강남을 떠나게 된다. 이때도 袁枚는 送別詩 四首를 지어 주었다고 전해진다. <送似村公子還長安>는 모두 三首인데, 이 시기 慶蘭의 생활에 대해 언급한 구절도 있다고 한다.<sup>13)</sup> 그리고 나머지 한 수는 <同梅岑送似村渡江同宿浦口別后却寄>의 “君行淚不收, 我歸淚更流”로 袁枚와 慶蘭의 깊은 우정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후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서신을 왕래하였지만,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乾隆36年(1771) 경란의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으로 들어섰을 무렵 아버지 尹繼善이 사망하게 된다. 그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여 이후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며 안빈낙도의 생활을 했다고 한다.<sup>14)</sup>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의 귀한 신분에서 곤궁한 일개 평민으로 전락한 것이다. 『紅樓夢』의 작가 曹雪芹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만주족 시인 明義는 慶蘭과도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 明義의 <綠烟瑣窗集>에 慶蘭과 주고받은 시 18수가 전한다. 明義의 시를 통해 경란의 후반부 삶을 유추해보면 마치 도연명처럼 은거생활을 하며 공명에 욕심을 버렸다고 전해진다.<sup>15)</sup> 가문은 부귀하였으나 낮은 가옥 몇 채를 손질하여 홀로 후미진 곳에 머무름으로써 방문을 피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시 읊조리는 것을 좋아하였고, 회화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袁枚의 『小倉山房外集』卷三에 <尹似村公子詩集序>가 있는데, 이미 이 시기에 尹慶蘭의 詩集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유실되고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13) “全家歸網下, 后會眞茫茫. 我聞斯言畢, 中懷惻以傷”“君家瓊瑤枝, 森森十三樹. 偏君最有緣, 十載江南住”

14) 裴效維, <螢窗異草의 寫作時間及作者考>, 『文史』, 2000, 第1期. 3쪽.

15) 李曉暉, <『螢窗異草』研究>, 華中師範大學, 2009, 碩士學位論文, 6쪽.

清末 民國初의 徐世昌이 편찬한 淸詩總集『晚淸落詩匯』二百卷에는 詩人 6천백여명과 詩 2만7천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慶蘭과 그의 시집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慶蘭은 字가 似村이고 滿洲旗人으로 諸生이다. 『小有山房詩鈔』, 『絢春園詩鈔』이 있다”고 하면서 <秋日卽事><sup>16)</sup>, <芳園><sup>17)</sup>, <卽景><sup>18)</sup>이라는 시 세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시 세수는 모두 정경을 읊은 것이다. <秋日卽事>는 가을의 정경으로 秋光, 夕陽, 雁聲, 苔痕, 茉莉 등의 意象이 가을의 높고 시원한 기운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을의 정취를 읊는 일반적인 시에 등장하는 蕭瑟이나 凋零之氣 같은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작가의 평안하고 욕심 없는 마음이 전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芳園> <卽景>은 모두 봄의 정경을 묘사했다. 芳園의 버드나무에 안개 자욱 깔리고, 멀리 산의 색이 푸르러 더욱 아름답다. 비 온 뒤의 맑은 하늘은 마치 씻어낸 듯 하고, 맑은 봄 별 아래에서 시인은 죽림에 앉아 거문고를 뜯는다. 때론 석양아래서 낙시대를 기울이고, 때론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다. 이것은 바로 유희자적 은거하는 삶을 반영한 것이다.

滿族 詩人 鐵保가 嘉慶9年(1804)에 八旗詩歌總集『熙朝雅頌集』134卷을 발간했는데, 淸初에서 嘉慶초까지의 534명의 八旗詩人의 시 6천여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卷第一百二에 慶蘭의 詩 28수가 남아있다. 비교적 중요한 작품으로는 <竹窗試筆>·<春寒>·<元武湖泛舟>·<春歸>·<綠陰>·<春日>·<閑意> 등이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景物을 읊은 것이거나, 여행기, 이별, 회답시, 친구간의 우정 등으로 산야에 은거하는 한적한 심정이 평담한 일상 정취와 잘 어우러져 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고증했듯이 『螢窗異草』의 작가에 대한 자료들에 의하

16) <秋日卽事> 秋光半院夕陽西, 散步淸搏手自携. 花滿欄前人影瘦, 雨余山外雁聲低. 湘帘風細波初動, 曲徑苔深路欲迷. 好傍小窗安茉莉, 愛他香晚透玻璃.

17) <芳園> 芳園楊柳帶烟和, 聊試掉前一曲歌. 欲透春光帘半卷, 好收山色鏡新磨. 鵲非報喜何妨少, 雨縱澆花也怕多. 解事小奚知我意, 却從竹里抱琴過.

18) <卽景> 碧天云淨雨初收, 水滿平橋却碍舟. 忽听屐聲叢竹里, 是誰先我上層樓. 新柳才青鳥未遮, 釣竿好趁夕陽斜. 園中細草凭他長, 多恐鋤時誤去花.

면, 그래도 ‘尹慶蘭說’이 가장 믿을만하다. 慶蘭은 특수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중국대륙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螢窗異草』의 내용이 주로 西北과 西南 위주로 치우쳤는데, 이것은 그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려낼 수 있었다고 본다. ‘長白浩歌子’에서 ‘長白’을 長白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장백산은 滿族人的 발양지다 청대사람들은 長白山을 숭배했는데 康熙, 乾隆, 嘉慶 모두 친히 장백산에 와서 조상님께 제를 올렸었다고 한다. 청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長白某某’ 라고 칭하였고, ‘長白山人’의 작가 王會역시 만주족이었다. 따라서 윤경란 역시 만주족 신분으로 ‘장백’이란 호칭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쨌든 남아있는 자료와 尹慶蘭의 생애, 그의 남겨진 시와 작품들을 살펴보면, 『螢窗異草』의 작가는 결국 尹慶蘭으로 귀결되고, 乾隆元년에 태어난 그는 53년(1736-1788)을 일기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 III. 『螢窗異草』의 창작시기와 내용

#### 1. 창작시기와 판본

『螢窗異草』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乾隆年間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두 번째는 光緒年間의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비록 두 가지 견해가 거론되기는 했어도, 魯迅을 비롯한 학자들이 첫 번째 견해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우선 戴不凡은 『小說見聞錄』에서 『聊齋剩稿』의 잔여분 중 일부 필사본을 보았다고 하면서, 종이색, 인쇄색을 보고 건륭연간 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19)</sup> 여기서 말하는 『聊齋剩稿』31편은 『螢窗異草』와 같은 본이라고 학자들이 고증했고, 그래서 이 두 책은 같은 책이고, 尹慶蘭이 쓴 것으로 인정되었다. 『聊齋剩稿』卷三、卷十의 31편 편목을 『螢窗異草』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순서도 바뀌지

19) 戴不凡, <偽題(聊齋剩稿)殘帙>, 『小說見聞錄』(1980. 2月), 浙江人民出版社. 243쪽.



<그림 2 申報館板本系列>

않았다고 고증했다. 후에 현대학자 薛洪, 祝注先 등 역시 대불범의 설을 이어 乾隆年間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魯迅은 『中國小說史略』第22篇 <청대: 晉唐 소설 모방과 그 지류(淸之擬晉唐小說及其支流)>에서 『聊齋志異』를 모방한 7개의 작품을 언급했는데, 그 중 『螢窗異草』에 대해 “長白浩歌子の『螢窗異草』3편 12권(건륭대에 모방한 작품으로 별도로 4편 4권이 있다고 하나, 이 책은 위조일 것이다似乾隆中作, 別有四編四卷, 乃書估偽造)”라고 하였다.<sup>20)</sup> 노신이 언급한 4편 4권은 지금도 그 존재 여

부를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3편 12권은 위작이 아닌 長白浩歌子가 틀림없이 쓴 것이다. 물론 이런 판본이 후인의 위작들과 섞였다면, 최초 필사본의 종이 질이나 색을 보지 않고서는 언제 창작되었는지를 가리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노신은 책의 序言 중 “或稱爲尹六公子所著”라는 글귀와 작품의 내용을 통해 창작연대를 건륭연간으로 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螢窗異草』의 138편 중 41편은 이야기가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北宋 元祐에서 清代 중엽까지 약 700여년의 시간을 넘나든다. 구체적으로 宋 元의 이야기는 각1篇, 明代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12篇, 明末 淸初의 이가기 1篇, 清代는 26篇에 해당된다.

하지만 宋, 元대의 이야기를 보면 國號, 年號, 干支 등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宋元祐間”(『號國夫人』), “元皇統中”(『蘇緒』), “故明天啓五年”(『姜千里』) 등으로 시간을 언급했다.

그리고 清代初에서 康熙年間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 國號가 생략되어 있고, 단지 年號나 干支만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康熙戊子”(『柳青卿』),

20) 魯迅 著, 趙爾巽 譯, 『中國小說史』, 서울:소명출판, 2004. 540-541쪽.



<그림 3 申報館板本系列>

“康熙初年間”(『痴婿』) 또는 “國初”(『程黑二』)라고 시대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螢窗異草』가 清代 康熙이후에 쓰여진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시간적 배경이 나타난 41편 중 19篇은 國號、年號 모두 생략되어 있고 단지 干支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혹은 春、夏、秋、冬을 덧붙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丙子歲”(〈金三娘子〉)、“甲子夏”(〈玉鏡夫人〉)、“庚午春”(〈賈女〉)、“戊子秋梢”(〈訾氏〉)등이 그러한 예이다. 옛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습관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年號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干支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정황이 『螢窗異草』의 창작연대를 추정할 수도 있게 해준다.

『螢窗異草』初編卷四 마지막에 있는 <狐嫗>의 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辛未大駕南巡”, “清和下甸”가 있다. 『清史稿高宗本紀』에 의하면, 乾隆 “十六年春正月……上奉皇太后南巡”, 至四月底回京. 라는 기록이 있다. 乾隆16년이 곧 辛未年이었고, “清和下甸”은 음력 4월 하순이 된다. 따라서 <狐嫗>의 “辛未大駕南巡”은 바로 乾隆皇帝의 南巡을 말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언급된 간지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乙卯”(雍正13年)이고, 그 다음이 “丁巳”(乾隆2年), 가장 늦은 것이 “己亥”(乾隆44年)이다. 결국 “乙卯” 외에, 다른 간지들은 모두 乾隆年間을 가리킨다. 『清史稿高宗本紀』에 의하면, “雍正13年 8월에, 世宗(雍正)이 崩御하시고, 황제의 네 번째 아들 弘歷이 황위에 오르니 바로 高宗(乾隆)이다. 다음해에 정식으로 연호를 乾隆으로 바꾸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雍正13年8월에 이미 乾隆이 황제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螢窗異草』의 시대적 배경은 건륭연간이 되고, 작가 역시 건륭연간 사람이다. 때문에 창작연대도 이 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裴效維은 『螢窗異草』중 가장 늦은 간지 연도가 “己亥(乾隆44년)”인 것을 감안하고, 경란이 세상을 떠난 시기가 乾隆53년인 것을 감안하여, 건륭44년에서 53년 사이(1779~1788) 그 9년의 기간 동안 창작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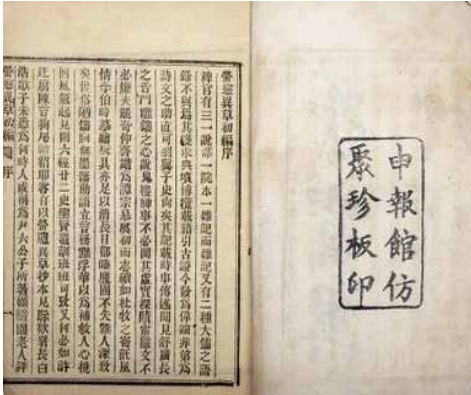
두 번째는 光緒年間의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의 작가는 申報館文人 혹은 19세기 후반의 과거를 준비하는 문인이라고 보고, 平步青, 陳祖武, 李金松, 李峰 등이 光緒年間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乾隆年間에 쓰여져 100년 동안 필사본으로 유통되다가 光緒2,3年 申報館에서 인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螢窗異草』는 대체로 건륭연간에 창작되어 100여 년 간 필사되어 유통되다가 光緒2,3년에 최초로 출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판본을 살펴보면 주로 4가지 계통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戴不凡이 보았다는 『聊齋剩稿』본이다. 乾隆年間에 간행했다고 전해지는 3권 12권으로 31편이 남아있다. 申報館本과 각 편의 글자가 일치하지만 篇末의 評語만 같지 않다. 『聊齋剩稿』本은 篇末에 ‘異氏史曰’ ‘王漁洋曰’ ‘外史氏曰’ 등이 있다. 申報館本은 단지 ‘外史氏曰’ ‘隨園老人曰’이 있을 뿐이라서 그 차이가 있다. 내용은 일치하지만 단지 『聊齋剩稿』本の ‘外史氏曰’ 내용은 申報館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마도 乾隆年間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판본이다.

두 번째는 申報館 필사본이다. 申報館에서 출판을 위해 이 책을 수집하여 필사해 둔 판본이 있었는데 杭州 若谷先가 소장하고 있었으며, 모두 3編으로 138篇이 남아있다. 原題에 ‘長白浩歌子著, 武林隨園老人續評, 關中柳橋居士重訂’이라고 되어있고, 光緒2,3年(1876-1877) 申報館에서 인쇄하면서 篇末에 ‘外史氏’ ‘隨園老人’의 평을 덧붙여 간행했다고 전해진다. 후에 출판된 『螢窗異草』는 모두 이 판본을 근거로 인쇄하였다. 篇首의 三篇 序言은 光緒2년(1876) 단오절에 梅鶴山人이 쓴 <『螢窗異草』序>, 光緒3년(1877)에 古滬縷馨仙史가 쓴 <『螢窗異草』二編序>와 역시 光緒3년 여름에 山陰悟痴生이 쓴 <『螢窗

21) 裴效維, <螢窗異草의寫作時間及作者考>, 『文史』, 2000, 第1期, 3쪽.



<그림 4 光緒2年(1876) 申報館 인쇄본>

異草』三編序>로 나누어져 있다. 아마도 이 序文들은 출판할 때 덧붙인 것이지, 창작당시에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螢窗異草』序>에 보면 “隋園老人的 평은 확실히 원매가 덧붙인 것이다(顧隨園老人評語, 的系附會)”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비록 이 수원노인의 평이 전체 중단지 29편에만 있고, 단지 소

설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간단히 자신의 의견을 쓴 것이지만, 예술성이나 내용면에서 확실히 원매가 쓴 것으로 고증되었다.

세 번째는 光緒21年(1895) 上海 漱芳潤齋에서 필사본을 근거로 인쇄한 『續聊齋志異』本 이다. 모두 5卷으로 86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17편은 위에 언급한 두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 署名에 “古吳浩歌子增訂, 漁洋山人續評, 外史氏再評”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전하지 않아 볼 수 없는 판본이다. 薛洪이 漱芳潤齋本과 申報館本은 서로 다른 필사본으로 간행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다른 판본에 없는 17편 고사의 사상적인 측면이나, 내용을 분석해보면 확실히 浩歌子가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螢窗異草』은 총 154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筆記小說大觀』本이다. 1920년대 上海 進步書局에서 『筆記小說大觀』을 간행했는데, 그 중 『螢窗異草』가 있고, “長白浩歌子著, 武林隨園老人評”라고 되어 있다. 篇首에 <螢窗異草提要>가 있지만, 작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申報館本에 비해 <王秋泉><窃妻> 두 편의 고사가 더 추가되어 있을 뿐 그 외 다른 고사들은 순서가 똑같이 배열되어 있다. 단 내용면에서 약간의 글자가 바뀌어 있다. <王秋泉>은 朱栴淸의 『理髮集』에서도 볼 수 있으니, 아마도 필사 과정에서 혼합되어 섞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판본 序言은 申報館本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梅鶴山



<그림 5 上海 進步書局的 筆記小說大觀本>

인의 初編 서문과 縷馨仙史의 二編 서문은 쓴 시기가 光緒31年(1905)으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은 일치하고, 三編의 서문은 “同治甲子仁和許康甫識于武林之薇云仙館”라고 되어있으며, 내용면에서도 申報館本의 山陰悟痴生の <螢窗異草三編序>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판본은 위에 언급한 네 종류가 전부이다. 그 이후 1980년대 『螢窗異草』가 기이한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층에게 사랑 받으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간행되기에 이른다. 1985년 齊魯書社에서 劉連庚校点本으로 출판되었으며, 1986년 浙江古籍出版社에서 楊一擘選譯本으로 출판되었고, 1986년 中州古籍出版社에서 孟慶錫校点本으로 출판되었다. 1989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馮裳과 蕭逸校点本으로, 1990년 人民文學出版社에서 馮偉民校点本으로, 1995년 遼寧古籍出版社에서, 2005년 重慶出版社에서 출판되었다. 이런 교점본들은 주로 申報館本을 底本으로 삼고, 『筆記小說大觀』本을 참고로 하여 출판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22)</sup>

## 2. 『螢窗異草』의 구성과 내용

『螢窗異草』는 <螢窗異艸初編>, <螢窗異艸二編>, <螢窗異艸三編>, 이렇게 총 세 편으로 이루어졌다. 각 편은 4책 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初編>의 권1은 13편, 권2는 10편, 권3은 13편, 권4는 10편, 도합 46편,

22) 필자는 齊魯書社에서 1985년에 劉連庚校点本과 人民文學出版社에서 1990년에 출판한 馮偉民校点本을 참고했다.



<二編>의 권1은 10편, 권2는 12편, 권3은 9편, 권4는 10편, 도합 41편,  
<三編>의 권1은 11편, 권2는 14편, 권3은 12편, 권4는 12편, 도합 49편이  
실려 있다.

### 初編

#### 序

卷一：天寶遺迹，卜大功，金三娘子，玉鏡夫人，賈女，桃花女子，紅鞋，  
毒餅，翠衣國，痴婿，犬婿，田鳳翹，劉天錫

卷二：桃叶仙，馮塤，昔昔措措，溫玉，睡姬，張仙，守一女，柳青卿，珊  
珊，白衣庵

卷三：魂灵，妒禍，李念三，訾氏，假鬼，銀針，賈殃，落花島，貨郎，化  
豕，縫裳女，火龍，青眉，王秋泉<sup>23)</sup>

卷四：胎異，夏姬，郎十八，三生夢，固安尼，无常鬼，蘇緒，衛美人，苦  
節，狐姬

### 二編

#### 序

卷一：瀟湘公主，紫玉，古冢狐，崔十三，白云叟，遼東客，弱翠，考勘  
司，杜一鳴，酒狂

卷二：祝天翁，暢生，鏡中姬，程黑二，拾翠，小珍珠，尸變，黃灝，徐小  
三，花異，鬼書生，于成璧

卷三：綠綺，痴狐，灯下美人，梁少梅，定州獄，住住，仙濤，陸廚，艷梅，

卷四：裊烟，鏡儿，翠微娘子，徐之璧，女南柯，子都，大同妓，虢國夫  
人，姜千里，畫廊，窃妻<sup>24)</sup>

### 三編

#### 序

卷一：唐城隍，智媼，挑綉，田一桂，沈陽女子，晉陽生，春云，折獄，隔  
江樓，談易狐，田再春

卷二：宜織，遺鈎，奇遇，綉瀉，輿中人，龐眉叟，詩妖，變鬼，續念秧，  
生生袋，窺井，巨蝎，梅異，童之杰

23) 申報館本을 底本삼고, 『筆記小說大觀』本을 참고하여 추가된 작품

24) 申報館本을 底本삼고, 『筆記小說大觀』本을 참고하여 추가된 작품

卷三：楊秋娥，笑案，戲言，銷魂獄，訟疫，秦吉了，龍陽君，苑公，銀箏，董文遇，馬元芳，瓢下賊

卷四：蛇媒，續五通，又，玉洞珠經，阿玉，斗蟋蟀，狐判官，鐘鼎，鬼无頰，秋露織云，蕭翠樓，盧京，蘇瑁

각 편의 끝에는 ‘外史氏曰’이라 하여 내용과 주인공에 관련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三編 권2의 <巨蠍>의 뒤에는 ‘수원노인(원매)이 이르니, 이 단락은 간결해서 좋다(隨園老人曰, 此一段簡潔可喜)’와 같은 袁枚의 평어도 함께 실려 있다. 初編의 卷頭 書名은 “螢窓異草”으로 되어있으며, 우선 光緒2年(1876)에 梅鶴山人이 쓴 <螢窗異草初編序>가 실려 있다. 二編의 권1의 앞부분에는 光緒3年(1877) 縷馨僊史가 쓴 서문이 있고, 三編의 권1 앞부분에는 光緒 丁丑年(1877)에 悟癡生이 쓴 서문이 실려 있다. 신보 관본의 서문에서는 “대체로 『聊齋誌異』를 많이 모방하였지만 새로운 것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섰다”<sup>25)</sup>고 평가한 글이 있다. 또한 梅鶴山人은 “비록 소설가의 말과 유사하여 문인이 불변의 법칙으로 삼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로써 긴 낮을 해소하고 잠을 쫓으리니, 진실로 안 될 것이 없다”<sup>26)</sup>고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상을 권계하는 작품으로 권선징악과 투기, 욕심, 음행을 경계하고 귀신의 허황함을 폭로하고 있다. 그 밖에 애정 고사도 많이 들어 있으며, 사회를 제재로 한 이야기는 대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풍자하고 있다.

애정고사를 예를 들어보면 전체 138편 중 총 46편에 달한다. 그중 3분의 1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것이다. 46편 중 10편이 여우와 인간의 사랑이고, 10편이 인간과 귀신간의 사랑이다. 6편이 인간과 신선(선녀)의 사랑이고, 3편이 인간과 신의 사랑, 2편이 인간들 간의 사랑, 2편이 인간과 요괴의 사랑, 1편이 인간과 새의 사랑, 1편이 인간과 물고기의 사랑, 1편이 인간과 꿈의 사랑을 그렸다. 현재 우리들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형태들이 그려졌지만, 현실과 예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정과 욕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25) 其書大旨，酷慕『聊齋』，新穎處駿駿乎升堂入室。

26) 雖有類小說家言，弗足爲文人典要，而以之消長日，却睡魔，固无可也

있다. 단점이라면 남자의 눈으로 여성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괴든, 인간이든, 여성 캐릭터에 주로 남자들의 고정적인 이상형을 반영하여 그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女南柯>라는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항주에 사는 黃履城의 막내딸 畹蘭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여서 아버지는 친히 글공부를 가르치며 원란을 손바닥위의 명주처럼 애지중지하였다. 9세에 이미 杜甫의 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였다. 귀하게 어여쁜 소녀로 성장한 원란의 신랑감은 아버지가 직접 채택하고 싶었으나 맘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원란은 매우 情이 많은 소녀로 성장하였다. 하루는 봄에 잠을 자다가 꿈에서 儂蒲國에 들어가 황후로 봉해진다. 국왕과 황후는 둘이 사랑하는 정은 깊었지만, 그런 꿈같은 생활은 계속되지 않았다. 임금은 향락을 좋아했고, 그런 즐거움에 빠져 나라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어 황후는 임금에게 충고를 하지만 왕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중에 적병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황후는 도망을 치고 만다는 고사이다. 꿈에서 깬 원란은 베개에 누워 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철리를 깨닫게 된다. <女南柯>는 『枕中記』·『南柯太守傳』와도 같은 류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국왕은 乾隆 황제로 당시 그의 행위를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원란은 실제 孝莊太候를 투영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이도 있다. 순정을 추구하는 정신은 李贄와 公安派, 湯顯祖로 이어지는 ‘至情’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철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들은 우연 소설의 맛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작품의 주인공은 일반 백성이 많고, 특히 선량하고 총명하며 다정하고 용감한 여자의 형상이 많이 등장한다. 한편 누형선사는 이 책에 대해 “그 생각은 심원하고 아득한 곳으로 들어가니, 이치상 분명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언어는 풍유로 귀착하니, 감정상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IV. 국내 소장된 『螢窗異草』판본

##### 1. 『螢窗異草』의 국내유입



<그림 11 奎章閣所藏本>

『螢窗異草』가 국내 유입된 정황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 이렇다 할 유입기록도 없다.

조선시대 正祖12年(1788), 15年(1791), 16年(1792), 17年(1793) 중국의 책 수입을 금지시킨 시기에 소설 뿐 아니라 경서, 역사서의 수입도 전면 금지된다.<sup>27)</sup> 하지만 금지령을 내렸지만 완전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어명을 어기고 실제 많은 책들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다시 중국소설에 대한 需要가 올라갔고, 이후 純祖8年(1808) 이조판서 남공철이 소설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다.<sup>28)</sup> 상소를 올

려 중국소설의 그 위험한 잠식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볼 때 『聊齋志異』는 대략 이 즈음에 유입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螢窗異草』 역시 이 시기와 유사할 것으로 본다. 먼저 『聊齋志異』가 유입된 시기를 추정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聊齋志異』가 국내에 수입된 시기는 대략 1800년 초기로 보여 진다.

李圭景(1788-1877:朝鮮憲宗時文人)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

桃花扇 紅樓夢 續紅樓夢 續水滸傳 列國志 封神演義 東遊記, 其他  
爲小說者不可勝記, 有聊齋志異蒲松齡者, 稗說中最爲可觀

27) 宋莉華 著, 『明清時期的小說傳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331쪽.

28) 宋莉華 著, 『明清時期的小說傳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332쪽.

이상에서처럼 여러 소설 중에서 포송령의 『聊齋志異』가 가장 불만하다고 극찬한 기록에서 이 작품의 유입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외 국내에서 볼 수 있는 판본의 대부분은 王士禎評 呂湛恩注의 『聊齋志異』版本(精文研, 高麗大, 延世大, 成均館大 等)이다. 그 亞流小說 또한 상당수 있는데 예를 들어, 王紫詮의 『繪圖聊齋志異』(成均館大), 王韜의 『後聊齋志異圖說』(奎章閣)과 『遜窟譚言』(潤松本, 無名氏의 『女聊齋志異』, 袁枚의 『新齊諧』(一名:子不語, 奎章閣), 沈起鳳의 『諧鐸』(奎章閣), 和邦額의 『夜譚隨錄』, 浩歌子の 『螢窗異草』(奎章閣, 成均館大), 天長宣鼎의 『夜雨秋燈錄』(延世大, 奎章閣) 등이 있다.<sup>29)</sup>

위의 기록을 근거로, 『聊齋志異』는 1800년대 초반 純祖에서 憲宗시기에 국내로 유입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螢窗異草』의 경우를 보면 浩歌子が 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乾隆44年(1779) 이후로 보고 있는 견해들이 있고, 100여 년간 필사되어 유통되다가 光緒 2-3年, 1876년 9월부터 이듬해 1877년 8월까지 申報館에서 처음으로 인쇄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聊齋志異』보다 적어도 80년 이상은 늦게 유입되었을 것이다. 100여 년 동안 필사되어 유통된 정황을 보면, 반드시 필사본이 유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국내 소장된 필사본은 보이지 않고, 또 필사본이 유입되었다는 기록도 따로 없다. 단지 국내 소장된 판본 중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螢窗異草』가 바로 신보관에서 光緒2年, 3年 에 출판한 총서본이고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奎章閣 所藏本 『螢窗異草』의 표제지 뒤 쪽에는 ‘申報館仿袖珍板印’이라는 기록이 있고, 각 권의 권두에는 “長白浩歌子著, 武林隨園老人續評, 關中柳橋居士重訂”이라는 기록이 있다. 光緒 연간에 신보관에서 간행된 것으로 수원노인이 평어를 달고 柳橋居士가 재수정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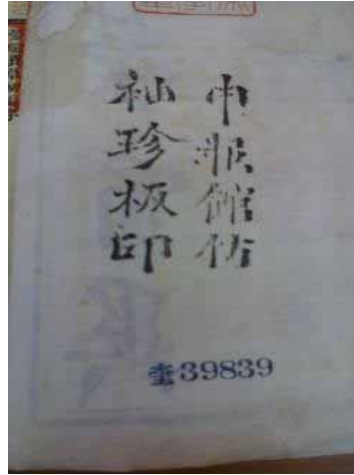
## 2 국내 소장된 판본 현황

앞에서 언급한 서울대 소장 申報館本 외에도, 국내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29) 閔寬東,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아세아문화사, 2001, 55쪽.



<그림 12 奎章閣所藏-申報館本 序言>



<그림 13 奎章閣所藏-申報館本>

을 비롯하여, 성균관대학교,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螢窗異草』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물론 크게는 申報館本類에 해당되는 판본들이지만, 申報館에서 출판한 『螢窗異草』는 서울대학교 奎章閣에만 소장되어 있고, 錦章圖書局에서 출판한 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 외에 英界棋盤街에서 출판한 『螢窗異草』는 단국대에서 소장하고 있다. 특징은 모두 상해에 있는 출판사들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신보관에서 출판했을 당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그림도 넣고 출판했을 가능성이 크다.

각 대학에 소장된 『螢窗異草』 판본에 대한 정황은 아래와 같다.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番號)
螢窗異草	長白活歌子(清)著, 袁枚(清)續評, 申報館, 光緒2年(1876)	4卷12冊, 中國活字本, 17×11.2cm	卷頭書名: 螢窗異草 序: 光緒二年(1876)梅鶴山人 印: 集玉齋, 帝室圖書之章	서울대 규장각 [奎중]5912

<p>螢窗異草</p>	<p>長白浩歌子(清)著, 隨園老人(清)續評, 柳橋居士(清)重訂, 上海: 錦章圖書局, 民國年間</p>	<p>16卷8冊(全16卷8冊), 石印本, 有圖, 20.1×13.4cm</p>	<p>表紙書名: 繪圖螢窗異草全編 刊記: 上海錦章圖書局石印 序: 光緒二年歲次丙子(1876) …梅鶴山人序於海上 豆一枝軒</p>	<p>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D7C-94</p>
<p>繪圖螢窗異草全編</p>	<p>長白浩歌子(清)著, 隨園老人(清)續評, 上海: 英界棋盤街, 光緒2年(1876)</p>	<p>1匣4編8冊, 彩色插圖, 20.5×13.5cm</p>		<p>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 IOS, 823.6-장182ㅎ</p>
<p>螢窗異草初編</p>	<p>長白浩歌子(清)著, 上海: 錦章圖書局, 光緒2年(1876)</p>	<p>16卷8冊, 石印本, 20.5×13.5cm, 四周雙邊, 半郭: 17.4×11.9cm, 有界, 21行42字, 上黑魚尾, 紙質: 竹紙</p>	<p>表題: 繪圖螢窗異草全編 序: 光緒二年歲次丙子(1876)端陽節梅鶴山人序</p>	<p>성균관대 존경각 D07C-0122</p>
<p>螢窗異草全編</p>	<p>長白浩歌子(清)著, 隨園老人(清)續評, 柳橋居士(清)重訂, 上海: 錦章圖書局, 光緒2年(1876)</p>	<p>4編8冊(1-8), 石印本, 有圖, 22×13.5cm, 四周雙邊, 半郭: 17.7×12cm, 有界, 21行42字, 白口, 上下向黑魚尾</p>	<p>版心書名: 繪圖螢窗異草初編 刊記: 上海 錦章圖書局石印 序: 光緒二年歲次丙子(1876) 梅鶴山人</p>	<p>부산대 도서관 3-12-36</p>
<p>螢窗異草全編</p>	<p>長白浩歌子(清)著, 隨園老人(清)續評, 柳橋居士(清)重訂, 上海: 錦章圖書局, 光緒2年(1876)</p>	<p>2卷1冊(全16卷8冊), 石印本, 有圖, 20.2×13.4cm, 四周雙邊, 半郭: 17.3×11.8cm, 有界, 21行42字, 上內向黑魚尾</p>	<p>版心書名: 繪圖螢窗異草初編 刊記: 英界棋盤街上海錦章圖書局石印 序: 光緒丁丑(1877)山陰悟癡生識</p>	<p>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812.85-장4182ㅎ-v.3 (2編(1)(卷1-2)) 이화여대 도서관 812.3-장52-1-8(卷1-16)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812.85-장4182ㅎ-v.4 812.85-장4182ㅎ-v.5 812.85-장4182ㅎ-v.6 812.85-장4182ㅎ-v.8 [2-4編(1-2)]</p>
<p>螢窗異草全編</p>	<p>長白浩歌子(清)著, 隨園老人(清)續評, 柳橋居士(清)重訂, 上海: 錦章圖書局, 光緒丁丑(1877)</p>	<p>2卷1冊(全16卷8冊, 4編(1)卷1-2), 石印本, 有圖, 20.2×13.4cm, 四周雙邊, 半郭: 17.3×11.8cm, 有界, 21行42字, 上內向黑魚尾</p>	<p>版心書名: 繪圖螢窗異草初編 刊記: 英界棋盤街上海錦章圖書局石印 序: 光緒丁丑(1877)山陰悟癡生識</p>	<p>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812.85-장4182ㅎ-v.7</p>

위의 표에서 정리했듯이 국내 소장된 『螢窗異草』 판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上海 申報館에서 출판한 袖珍本<sup>30)</sup> 『螢窗異草』이다.

둘째 上海 錦章圖書局에서 출판한 그림이 있는 삽화본 『螢窗異草』이다.

셋째 上海 英界棋盤街에서 출판한 채색 그림의 삽화본 『螢窗異草』이다.

이들 판본을 비교해보면, 우선 가장 큰 차이는 申報館 판본은 목활자본인데 반해 다른 書坊에서 출판한 판본들은 모두 석인본이라는 점이다. 활자본으로 책을 인쇄한다는 것은 소량의 책을 빨리 찍어내고 빨리 판을 해체하고 다른 책의 판을 짜려는 출판업자들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아무리 100여 년간 필사로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 책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웠기에 무작정 판을 만들어 많이 찍어내는 것은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1876년 가을에 인쇄된 판본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주위에 있던 書坊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물론 최초 필사본에 대한 판권은 申報館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申報館에서 인쇄되어 선보인 판본은 袖珍本이었고,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단지 작은 문고판처럼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게 찍어냈을 뿐이다. 그 후 申報館 판본의 단점을 보완하여 삽화를 넣어 上海 錦章圖書局에서 출판을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光緒2年(1876)인데, 아마도 申報館本이 시중에 선보이고 나서 바로 석인본으로 찍어낸 듯하다. 자료를 찾던 중에 申報館 『螢窗異草』는 세일을 해서 팔았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sup>32)</sup> 당시의 독자들이 삽화가 들어간 『螢窗異草』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다시 上海 英界棋盤街에서 삽화에 채색을 더한 『螢窗異草』 판본을 선보이게 된다. 채색을 넣어 책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30) 휴대용으로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책. 목판으로 제작되어 민간인에게도 널리 유포되었다.

31) 대량의 인쇄물은 목판인쇄로 얻었으니, 사실 금속활자는 多種 小量의 인쇄물을 얻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중소량의 텍스트 중 보다 널리 보급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에서 목판으로 번각되거나 아니면 필사본으로 복제되었다(강명관, 『책 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서울, 푸른역사, 2010, 14쪽).

32) 앞의 주석2번 참조.



되어야 했기 때문에, 英界棋盤街에서 이 채색본을 선보였다는 것은 이미 『螢窗異草』의 독자층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소장된 『螢窗異草』는 上海 錦章圖書局에서 民國初期까지도 『螢窗異草』를 출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비록 연구된 바는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더욱이 당시는 小說評點이 소설 흥성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螢窗異草』의 작가 浩歌子가 尹慶蘭이라고 고증이 안 된 시기더라도, 隨園老人 袁枚의 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했었을 것이다. 申報館本을 보면 매 편 뒤에 外史氏와 수원노인의 평만 있는데 반해, 錦章圖書局本에는 柳橋居士의 評이 추가된 상태로 인쇄되었다. 아마도 錦章圖書局에서 삽화본을 출판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들의 책 크기를 보면 申報館本이 17×11.2cm이고, 錦章圖書局本이 20.5×13.5cm(20.1×13.4 한국학중앙연구원), 英界棋盤街本이 20.5×13.5cm이다. 申報館의 袖珍本을 제외하면, 두 곳 출판사의 책은 크기가 비슷하다. 신보관본의 글자수는 12行 24字로 구성되어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인 英界棋盤街本은 字數不定이고, 錦章圖書局本은 21行 42字로 구성되어있다. 이렇듯 각 대학에 소장된 판본들에서도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본들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분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각 판본이 유입된 전후시기를 연구하고, 국내 소장된 『螢窗異草』판본 자체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V. 맺음말

필자는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국내 유입 문언소설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螢窗異草』판본을 접하게 되었다. 노신은 『중국소설사략』에서 『螢窗異草』를 단지 『聊齋志異』를 모방한 작품이라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어, 이 작품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비하여, 본고에서는 작품의 내용에 치중하기 보다는 우선 『螢窗異草』의 작가와 창작시기, 판본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을 위주로 하였다. 먼저 작가 署名의 長白浩歌子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 가지 설을 간단히 소개하고, ‘尹慶蘭說’에 집중하여 그 집안의 가족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尹慶蘭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을 유추하려 하였다. 대개 尹慶蘭이 乾隆연간에 창작을 했으며, 이 작품이 100여 년 동안 필사본으로 유통되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기이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풍조가 『聊齋志異』를 통해 더욱 유행하면서 드디어 上海 申報館이라는 출판사에서 『螢窗異草』를 인쇄해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는 출판사에서 귀한 책을 얼마나 소장했느냐가 중요시 되었고, 유명인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이 돈이 되었기 때문에 다투어 출판하였다. 『螢窗異草』의 몇몇 작품 뒤에 袁枚의 평이 있다는 것으로도 더욱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奎章閣에 직접 가서 판본을 보면서 申報館에서 출판한 판본이 지금의 문고판 소설처럼 작게 출판된 袖珍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乾隆年間에 필사본으로 유통되던 이 소설이 상해 申報館에서 처음으로 인쇄본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귀한 판본이 국내 규장각에 단지 한 질만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다른 몇몇 대학 도서관에도 『螢窗異草』가 소장되어 있지만, 申報館의 최초 판본이 아니어서, 奎章閣에 있는 申報館本의 가치가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역시 이 판본에 관심을 갖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본고에서는 단지이 작품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 작품에 대한 내용분석과, 예술적 가치를 분석하는 일도 가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明清代는 백화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지만, 清代 후반까지 『聊齋志異』의 영향으로 晉·唐의 문언소설을 모방한 작품들이 쓰여졌고, 출판되었다는 점은 소설사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長白浩歌子, 劉連庚交點, 『螢窗異草』, 濟南:齊魯書社, 2004.
- 長白浩歌子, 馮偉民校点, 『螢窗異草』,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0.
- 陳文新, 『文言小說審美發展史』, 武漢:武漢大學出版社, 2002.
- 戴不凡, 『小說見聞錄』, 杭州:浙江人民出版社, 1980.
- 侯忠義, 『中國文言小說參考資料』,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85.
- 侯忠義, 劉世林, 『中國文言小說史稿』,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3.
- 魯迅, 『中國小說史略』,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8.
- 寧稼雨,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濟南:齊魯書社, 1996.
- 宋莉華, 『明清時期的小說傳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平步青, 『霞外裙屑』上,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2.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서울:아세아문화사, 2001.
-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서울:푸른역사, 2010.
- 魯迅 著, 조관희 역주, 『中國小說史』, 서울:소명출판, 2004.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의 國內 流入과 受容에 대한 研究>, 『중국어문학』 제49호 (2007. 6).
- 王鴻芦, <關於『螢窗異草』幾個問題的探討>, 『中州學刊』, 1987年第4期.
- 薛洪, <『螢窗異草』論略>, 『民族文學研究』, 1987年第4期.
- , <清代滿族作家的文言小說創作和評論>, 『明清小說研究』, 1988年第1期.
- 祝注先, <長白浩歌子和他的『螢窗異草』>, 『西南民族學院學報(哲社版)』, 1989年第3期.
- 劉燕萍, <『螢窗異草』中的人仙戀>, 『明清小說研究』, 2002年第1期.
- 李峰, <也談『螢窗異草』之成書年代及作者>, 『鹽城師範學院學報』, 2002年第3期.
- 李杰玲, 李寅生, <『螢窗異草』:『聊齋』余瀾中的波峰-探析『螢窗異草』的思想和藝術特色>, 『蒲松齡研究』, 2007年第2期.
- 李曉暉, <『螢窗異草』研究>, 華中師範大學, 2009, 碩士學位論文.

❖ ABSTRACT

The Study of Yingchuangyicao  
- Focus on the Writer and Printed book

YOU hee June · Min guan dong

*Yingchuang yicao* (《螢窗異草》) is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in Classical Chinese, whose style was much affected by *Liaozhai zhiyi* (《聊齋志異》). It consists of 3 chapters, 12 *juan*, and 138 stories. This work was written by a scholar with the pen name of Hao gezi(浩歌子) in the reign period of Qianlong in the Qing dynasty, and has drawn relatively little attention among the scholars thus far; it was not until 1980's that scholars figured out that the author Hao gezi was Yin Qinglan, the sixth son of the renowned Qing scholar Yin Jishan.

*Yingchuang yicao* had circulated as a manuscript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until it was printed by Shenbao guan(申報館) in Shanghai in the reign period of Guangxu 2-3 (1876-1877). This edition is currently collected at The Kyujanggak(奎章閣) Institute of National Seoul University. At present, no known study of its introduction to and circulation in premodern Korea is available. However, given that the late Chosŏn period saw high interest in Chinese narratives, it is speculated that this work was imported to Korea soon after its first publication in China. Later, two publishing houses in Shanghai also published illustrated editions of the work. Given that the Shenbao guan version is the first printed edition of *Yingchuang yicao*, the copy collected at Kyujanggak Institute should be regarded highly for its academic values.

---

Key Words

《螢窗異草》, 《聊齋志異》, 浩歌子, 申報館, 奎章閣  
*Yingchuang yicao*, *Liaozhai zhiyi*, Hao gezi, Shenbao guan, Kyujanggak

논문접수일: 2011. 04. 19.

심사완료일: 2011. 05. 25

게재확정일: 2011. 06. 10